



100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의열단 100주년 기념 세미나  
항일여성 부부독립운동가의  
사랑과 투쟁

일시 :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15:00-17:3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주관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의열단 100주년 기념추진위원회  
항단연(사)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후 원 | 국가보훈처, 서울시청, 서울특별시의회

의열단 100주년 기념세미나

# 항일여성 부부독립운동가의 사랑과 투쟁

- 박자혜·신채호 부부의 사랑과 혁명 -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 목 차

## ■ 발표문

의열단 100주년 기념세미나

### 항일여성 부부독립운동가의 사랑과 투쟁

- 박자혜·신채호 부부의 사랑과 혁명 -

## ■ 토 론

I. 박창식(한겨레신문사 매거진랩 사업단장)

II. 이진옥((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III. 위기훈(극작가, 한양대학교 연극과 겸임교수)

---

---

의열단 100주년 기념세미나  
항일여성 부부독립운동가의 사랑과 투쟁  
- 박자혜·신채호 부부의 사랑과 혁명 -

---

---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 박자혜 · 신채호 부부의 사랑과 혁명

김 삼 응 (전 독립기념관장)

## 신채호와 박자혜, 부부 연을 맺은 사연

구국 언론인, 민족사학자, 전기작가, 소설가,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이 모든 분야에서 특출한 일가를 이룬 단재 신채호 선생이 1910년 국치를 앞두고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을 사퇴한 후 신민회 간부들과 해외로 망명했다. 중국 청도를 거쳐 러시아령 해삼위에서 『해조신문』을 발간하여 교포들의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만주 봉천성 회인현으로 가서 고대 한민족의 유적을 답사하여 『조선사』저술에 착수했다. 나라를 빼앗겼어도 역사만 잃지 않으면 반드시 독립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민족사 연구에 나선 것이다.

1915년 베이징으로 건너와 신규식 등과 신한청년단을 조직하고, 『조선상고사』를 집필하는 한편 박은식 · 문일평 등과 박달학원을 세워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청년들을 교육하였다. 1919년 국내의 3·1혁명 소식을 듣고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의정원의원으로 참여 하면서, 이승만의 국무총리 선임에 반대하고 뛰쳐나와 『신대한』의 주필이 되어 일제와 싸웠다.

1920년 베이징으로 옮겨 비밀결사 보합단을 조직하고, 이회영 · 박용만 등 무장투쟁론자들과 항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나이 40살이었다.

이회영의 베이징 집은 독립운동가들의 집결지가 되었다. 지역 · 계층 · 연령을 불문하고 독립운동가들이 베이징에 오면 으레 그의 집에 들렀고, 며칠 동안 길게는 몇 달씩 머물렀다. 신채호 · 김창숙은 물론 소설 『상록수』의 작가 심훈도 그의 집 신세를 졌다.

삼한갑족으로 만석꾼의 재산이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운영으로 바닥난 이회영 내외는 궁핍함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을 흔연히 대접했다. 부인 이은숙은 몇 차례나 비밀리에 귀국하여 친정에서 자금을 갖고 와서 남편과 독립운동가들의 뒷바라지를 했다. 심지어 마을 어귀의 텃밭에 배추를 심어 독립운동가들에게 김치를 담가 주었다. 이은숙도 정승의

외동딸이었지만, 남편 못지 않은 여걸이 되었다.

이회영은 그림 솜씨가 대단하여 독립운동 자금이 떨어지면 난초를 쳐서 팔기도 했다.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의 화법을 배운 이회영의 난 그림은 중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 식량이 떨어지거나 괴로울 때면 그는 손수 만든 통소를 불면서 마음을 달래고, 고향 생각을 하는 젊은 독립운동가들의 향수도 달래 주었다. 그래서 신채호는 그를 무척 좋아하였다.

어느 날 이은숙이 뜬금없이 신채호에게 증매를 서겠노라는 말을 꺼냈다.

“단재 선생, 내가 봐둔 처자가 한 명 있는데 결혼을 하시면 어떨까요?”

“저의 처지를 잘 아시면서, 결혼이라니요.”

“아니올시다. 어려운 형편은 다들 같이 겪은 일이고,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터인데 건강을 살피려면 가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리라 믿소이다. 우당공(公) 하고도 상의한 일ियो.”

박자혜(朴慈惠) —. 향년 24살, 3·1혁명 때 서울에서 간우회사건을 주도하다가 옥고를 치루고 풀려나 봉천을 거쳐 베이징으로 망명하여 당시 연칭대학 의학과에 재학중인 당찬 여성이었다.

그녀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기도 하였다.

7살 때에 궁궐의 조 대비 처소에 애기나인으로 입궐하여 조 대비 사후 윤 대비 처소로 옮겼다. 국치 직전 윤 대비의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숙명여학교 의예과에 입학하여 2회로 졸업하고, 총독부가 세운 적십자병원 간호원으로 일하면서 동료들과 3·1혁명에 뛰어들었다. 서울시내 국·공립병원 의사와 간호원들을 규합하여 태업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투옥되었다. 조선총독부의「조선인 감시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과격하고 언변이 능한 자. 총독부 의원·간호사 모두를 대상으로 독립만세를 고창한 주동자.”

신채호는 40살의 홀아비 —.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망명객, 거기에 비사교적이고 성마르며 살갑지 않은 성품, 누가 봐도 결혼상대로는 적합하지 않은 중년 남성이었다.

박자혜는 신채호를 익히 알고 있었다. 국내에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신여성』등에 쓴 그의 글을 읽었고 그동안의 행적도 비람결에 들었다. 해서 금방 맘을 열었다.

“금강산 단풍구경보다 몽고 사막풍에 흥금을 펼치고 싶다”던 그 사람이 아닌가. 해서 우국지사와 애국여성이 부부의 연을 맺었다.

박자혜가 맘을 여는 날 남편 될 사람의 말이 이랬다.

“나는 가정에 등한한 사람이니 미리 그렇게 알고 마음에 섭섭히 생각마시오.”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일치하는 남자와 그런 사내를 마다하지 않은 여성의 조우였다. 운명과 숙명 사이에서 조우한 두 사람의 ‘부부의 연’은 그러나 부박한 세상 좀팽이들의 백년가약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엄숙하고도 순정한 노력으로 저 분을 내 낭군으로 섬기리라.”

— 박자혜는 몇 번이고 마음에 다짐하였다.

신채호는 이즈음「한 나라 생각」이란 시를 지었다. 박자혜를 두고 쓴 시였을까?

## 한 나라 생각

나는 네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랑 사이 칼로써 베면  
고우나 고운 핏덩이가  
줄줄줄 흘러내려 오리니  
한 주먹 덩씩 그 피를 쥐어  
한 나라 땅에 고루 뿌리리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 맛이 하리.

## 생활고로 아내 고국으로 돌아와

베이징 북성(北城) 사두호동(沙頭胡同)의 싸구려 셋집에서 신혼생활을 하던 신채호 부부는 1921년 1월 맏아들을 낳았다. 수범(秀凡)이라 이름 지었다. 가족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친고』라는 잡지를 내고 「이승만 성토문」을 쓰고 했으나 돈이 생기는 것도, 밥이 나오는 일도 아니었다. 아내가 잘 견뎌주는 것만도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었다.

짧은 동거 기간이었지만 박자혜는 남편을 한 번도 '여보'라고 불러보지 못하였다. 몸을 섞어도 남편은 너무 먼 곳에, 먼 꿈을 찾고 있었다. 그 꿈이 당신 생전에 이뤄질지 모르지만, 장애물이 되고 싶진 않았다.

“단생님, 저 아기 데리고 조선으로 들어가렵니다. 조선의 아이를 이역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서요.”

아내는 생활고를 말하지 않았다. 실제로 남편과의 소중한 핏줄을 남의 나라에서, 남의 말을 배우며,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 것이 박자혜의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혼인하기로 한 날의 말이 떠올랐다.

“가정사에 등한히 하더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박자혜는 1922년 여름 두 살난 아들 수범이를 데리고 귀국길에 올랐다. 친가나 시가나 마땅히 의탁할 곳이 없었지만, 떠날 때 대책없이 남편의 “제 나라 말과 풍속을 익혀야 한다”는 말이 서운하기 그지없으나, 너무나 지당한 말을 가슴에 안고, 결혼 2년여 만에 남편 곁을 떠나,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기약없는 발길을 고국으로 돌렸다.

아내와 아들을 떠나보낸 날 신채호는 온 종일 꼼짝하지 않았다. 민족·독립·역사... 여러 가지 추상의 낱말들이 떠올랐다 사그라지기를 반복하였다. 그동안 친숙해진 절망이라는 감정이 이날따라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종잡을 수 없는 분하고 비통한 심사가



마음을 헤집기도 했다. 그리고 왜 착한 아내를 좀 더 살갑게 대하지 않았던지, 아삼아삼 후회되고 그리움이 솟구쳤다.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만날까….

“박자혜! 무사히 귀국하길 바라오.”

국내로 들어온 박자혜는 얼마 후 서울 인사동에 호구지책을 위해 ‘산파 박자혜’라는 조산원을 차렸다. 여기 저기 조산원이 문을 열고 있었고, 일경의 감시가 심하여 수입이 신통치 않았다. 두 식구가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박자혜는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아들이 영양실조로 시름할 때에도, “네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라. 원망하지 말고 잘 자라나거라.”라고 말해 주었다.

박자혜는 극심한 가난과 자식의 병고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간여하였다. 남편도 개입한 의열단원 나석주 의거를 도운 것이다. 1926년 12월 나석주가 서울에 들어와 수탈기관 조선식산은행과 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질 때, 두 곳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를 은신시켜 주었다. 황해도 출신인 나석주 의사가 서울지리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어느 신문이 ‘신채호 부인 방문기’를 썼다. 뒤에 다시 소개하고, 여기서는 서두만 알린다.

시내 인사동 육십구 번지 앞 거리를 지나노라면 ‘산파 박자혜’라고 쓴 낡은 간판이 주인의 가궁함을 말하는 듯이 붙어 있어 추운 날 저녁별에 음산한 기운을 자아내니 이 집이 조선 사람으로서는 거의 다 아는 풍운아(風雲兒) 신채호 가정이다.

간판은 비록 산파의 직업이 있는 것을 말하나 기실은 아무 쓸데가 없는 물건으로 요사이에는 그도 운수가 갔는지 산파가 원채 많은 관계인지 열 달이 가야 한 사람의 손님도 찾는 일이 없어 돈을 벌어보기는커녕 간판 붙여놓은 것이 도리어 남부끄러울 지경이므로 자연 그의 아궁이에는 불 때는 날이 한 달이면 사오일이 될까 말까 하여 말과 같은 삼순구식의 참상을 맞보고 있으면서도 주린 배를 움켜잡고…(『동아일보』1928년 12월 12일자)

그 무렵 신채호는 몇 해 전에 읽었던 러시아 아나키스트이고 혁명가인 크로포토크의 『한 혁명가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혁명을 성공시키는 것은 희망이지 절망은 아니다.”

젊은 아내와 별리의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국해방을 꿈꾸는 혁명가들이 신채호를 찾아왔다. 배달무·남공선 등 혈기 있는 동지들이었다. 이들과 군사통일축성회를 조직하여 무장전쟁을 준비하면서, 배달무를 남만주로, 남공선을 북만주에 파견하여 그쪽 지도자들과 연대를 추진케 하였다.

1923년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찾아왔다. 그의 요청으로「조선혁명선언」(의열단선언)을 집필하였다. 항일독립운동사에 첫번째로 꼽히는 격렬하고 장대한 문건이다.

## 7년만에 가족 재회했으나

이무렵 신채호는 아나키즘에 심취하면서 정신은 더욱 명료해지고 사상의 갈래는 대초원같이 끝없이 펼쳐지는 듯 하였다. 지적인 즐거움도 쏠쏠했다. 틈나는 대로 세계적인 아나키스트들의 저서를 찾아 읽었다. 지배가 없고 특권이 주어지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나키즘 외에 달리 방략이 없는 듯 하였다. 1925년 경부터 유자명의 소개로 알게된 대만인 아나키스트 임병문(林炳文)과 서울에서 온 이지영(이필현) 등과 자주 어울렸다. 그도 투철한 아나키즘 신봉자였다.

국내에서는 1927년 2월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의 연합으로 신간회가 설립되었다. '민족단일당 민족협동전선'이라는 표어 아래 조선민족운동의 대표단체로 발족한 것이다. 여기에는 민족·사회주의계열 외에도 천도교계·비타협 민족주의계·종교계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국치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을 결성하였다. 다만 자치운동을 주장하던 민족개량주의자들은 배제되었다.

창립총회에서 회장 이상재, 부회장 권동진, 그리고 안재홍·신석우·문일평 등 35명을 간사로 선출하면서, 홍명희가 서신으로 신채호에게 참여를 요청하여 중앙위원으로 추대되었다. 망명 후 국내의 민족 단체에 간부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신간회는 한때 지회수 143개, 회원수 2만 명에 달하는 전국적 조직으로 성장했으나 내부의 이념 갈등과 일제의 탄압으로 1931년 5월 해체되고 말았다. 신간회의 발족은 해외 독립운동 단체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임시정부는 여전히 창조파와 개조파로 갈려서 대립하고 있었다.

신채호는 창조파의 위치에서 임시정부를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1923년 8월에는 창조파 인사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합을 갖고, 김규식을 행정수반, 윤해를 의회 의장으로 하는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채호는 박은식·이동휘·이상룡·문창범 등과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이나 만주에 새로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무장투쟁을 계획했으나, 러시아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청사임대 등의 거부로 정부 수립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신채호는 이래 저래 임시정부 측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역사 저술과 아나키즘 단체의 활동에 열정을 쏟았다. 그리고 베이징 외곽 보타암에서 ‘비승비속’의 처지로 언제까지 절간 신세를 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베이징 외각에 방을 구해 혼자 기거하였다.

식생활이 부실한 데다 각종 사료를 뒤지고 밤낮 가리지 않고 글을 쓰다보니 시력이 크게 나빠졌다. 안질이였다. 설명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여 서울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시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당신과 아들의 얼굴을 한 번 보고 싶소.”

염치 없는 남편이었다.

조국 해방운동도 좋고, 역사 연구도 좋지만, 아내와 아들은 이게 무슨 꼴인가. 그렇다고 여비라도 보내주면서 만나고 싶다는 편지라면 또 모를까….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불원만리 길이 아닌가. 그래도 편지를 받은 박자혜는 마냥 즐거웠다. “남편을 만난다니…”

남편이 고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처지이니, 아내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늘 감시하는 종로경찰서 형사를 따돌리기 위해 머리를 썼다. 시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충청도 대덕으로 가는 것처럼 이웃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어렵게 노자를 마련하여 기차로 국경을 넘었다. 독립운동가 가족이 사는 마을에는 경찰에서 박아논 고첩들이 있어서 언행이 수시로 총독부에 보고되었다.

1928년 초 박자혜는 어느새 8살된 아들과 함께 ‘남편 찾아 3만리’ 길에 올라 베이징에 도착했다.

7년만의 재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많이 쇠약해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반가움 보다는 북받치는 설움이 부부를 끌어안게 만들었다. 몰라보게 자란 아들 수범이가 쓰악한 표정으로 아비라 불리는 중늙은이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이 순간 부부는 다시 한 번 울적

가슴이 메었다.

“저 어린 것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신채호는 불현 듯 유가의 기본이고 기초라는 『논어』의 ‘수신제가(修身濟家)’를 떠올렸다. ‘수신’은 그렇다 치고, ‘제가’에도 빵점이 아닐까 싶었다. 남편의 구실, 아버의 구실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무심한 남편이고 무정한 아버지였다. 변명거리였을까, 안중근의 부인과 자식들은 어찌 되었을까, 수많은 의병들, 의열단원들, 다물단원들의 가족은? 그들은 ‘치국(治國)’을 위하여 ‘제가’를 버리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논어』의 가르침은 무용한 주장인가….

바늘 끝이 들어올 틈새도 허용치 않을 만큼, 일체의 사됨이 없는 삶을 살아온 신채호는 7년 풍상에 많지도 추레해진 아내를 보는 순간, 이제까지의 신념이 크게 흔들리는 듯한 마음에 빠져들었다. 석가모니는 무엇을 위해 왕좌를 버리고, 크로포토킨은 왜 자기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1천 명 이상의 농노를 거느리며 유복하게 살았을 삶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은 국치기이고, 자신은 지식인 중에서도 민족사를 연구하는 사가이고…。 베이징 하늘에서 눈이 펄펄 쏟아지고 있었다.

신채호 부부는 생활고와 독립운동의 일로 2년여 만에 다시 헤어져야 했다. 박자혜는 어린 아들과 뱃속에 아이를 품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것이 이승에서 마지막이 된 생이별이었다.

신채호는 1928년 베이징에서 『탈환』· 『동방』잡지를 발행하는 한편 동방무정부주의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조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경에 피체되고, 10년 형이 선고되어 휘순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수인(囚人)이 된 신채호는 가끔씩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박자혜는 밀린 집세 등 어려움을 넘두리삼아 남편에게 호소했더니,

“정 할 수 없거든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시오.”라는 답신이였다.

아내나 남편이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다.

## 신문에 보도된 ‘박자혜 가정’ 실태

박자혜는 3·1혁명 당시 간호원과 의사들을 독립시위에 동원하고 앞장섰던, 참으로 야무지고 기결찬 신여성이었다. 신채호를 만나 결혼하면서 그의 삶은 온통 빈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남편이 투옥되던 해 12월 한 신문 기자가(앞에서 잠깐 소개한)「신채호 부인 방문기」를 썼다. 긴 내용이어서 몇 대목을 발췌한다.

굶어 죽어도 사나이 자식은 글을 배워야 한다 하여 없는 것 있는 것을 다 털어 교과서를 겨우 사서 큰 아들 수범 군을 교동보통학교 2학년에 통학을 시키는 중이나 어머니가 굶으니 수범 군도 굶고 다니는 날이 태반인데다가 옷 한 벌 변변히 얻어 입지 못하고 남과 같이 학용품 한 가지 사서 쓰지 못하여 추루한 기상은 이웃 사람도 찾아보지 못하는 모양이다.

수범 군은 어머니에게 효성이 가극하여 말썽 부리는 일 한 번 없고 어머니가 혹 나갔다 늦게 돌아오면 언제까지든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린다는데 그의 나이는 금년 여덟살이라 하여 그 밑으로 두범 군이 있으니 그는 당년 두 살로 아버지의 얼굴 한 번도 못보았다 한다.

“대련이야 오직 춥겠습니까, 서울이 이려한데요.” 하며 박 여사가 처음보는 기자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잊고 훌적거리는 그 광경에는 어언간 동정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편지 한 쪽에는 조선옷에 솜을 많이 놓아 두툼하게 하여 보내달라는 부탁이었으나 우선 어린 아이들 거느리고 살아갈 길도 망연하니 옷 한 벌 부칠 재료가 있을 리 없다.

서리치는 아침 눈보라 날리는 저녁에 그의 심경이 어이하리. 지금 있는 집도 어느 아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좁다란 방 한칸에 6원 50전씩을 주어왔으나 이제는 그것도 여의치 못하여 석달 동안이나 지불치 못하고 있으며 날마다 성화같은 집주인의 독촉에는 굶는 것보다 견디기 어려운 모양이다.

만리 타향에서 온갖 고초를 다 바쳐가며 전전유리하던 그 부부의 생활이나마 오랫동안

계속하는 운명을 가지지 못하였다. 북경 지역의 생활을 떠나 신채호는 홀로 남아 있고 박자혜 여사만 둘 사이에 생긴 수범군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아무리 세상에 뜻이 있어 떠돌아 다니는 그 인물 생활의 도리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어린 아이와 젊은 부인을 전별할 때에 그의 애가 끊어졌을 것은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박자혜 여사가 어린 아이를 안고 본국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본래부터 빈한한 친정에는 의탁할 여지가 없어 이리저리 아는 사람의 신세를 지고 다니다가 친척의 관계로 알음에 있는 모씨의 집에서 몇 해 동안을 거주하게 되었으나 자기 혼자 몸도 아닌 그는 주인이 아무리 관대한 대우를 한다 하여도 전부가 자기의 뜻과 같을 리도 없으려니와 그도 오랫동안 계속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작년 동지달 그믐날에 이사를 하게 된 것이라 한다.

겨우 피가 마른 수범 군을 북경에서 떨쳐 보낸 신채호는 몽매에 그린 것이 그의 아내와 아들이어서 한번 오기를 바랄 수는 없으나 수범 군의 사진을 보여 달라는 편지가 왔다. 고초에 고초를 거듭하던 박 여사는 그 소식을 듣기가 바빠 수범 군을 데리고 다시 북경의 길을 떠나 오랜만에 만난 가정과 기쁜 눈물에 젖은 생활을 얼마동안 계속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곳에 뜻을 두었던 신채호가 그 처지에 구속을 받고자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그가 애인 박자혜와 두 번째 생이별을 하게 된 바이었다.

다행히 다시 사랑의 씨가 맺어져 두범 군이 생겨나서 방금 펄떡거리며 노니는 것도 보는 사람의 눈물을 금하지 못한다.(『동아일보』, 1928년 12월 12~13일자)

신채호가 투옥 8년만인 1936년 2월 뇌일혈로 위독하다는, 휘순형무소에서 박자혜에게 전보로 알려왔다. 출옥 후 그의 활동이 두려운 일제가 살해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따른다. 박자혜의 통절한 '제문'에서 저간의 사정을 살피게 한다.

## 가신 님 단재의 영전에

- 제문(祭文)을 대신하여 곡(哭)하는 마음

박자혜는 남편의 사후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아 사부곡을 지었다. (원문)

밤도 깊어가나 봅니다. 우리 몇 식구가 깃드린 이 작은 방은 좁고 거츠른 문창이 달빛에 밝게 물들었습니다. 수범이 두범이도 다 — 잠이 드렸소이다. 아까까지 내가 울면 따라 울드니만 인제 다 잊어버리고 평화스런 꿈세상에서 숨소리만 췌근췌근 높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남겨 놓고 가신 육체와 영혼에서 완전히 해탈된 비참한 잔뼈 몇 개를 집어넣은 꿏작을 부동켜 안고 마음돌 곳 없어하나이다.

작은 꿏작은 무서움도 괴로움도 모르고 싸늘한 채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뜻을 못 이루고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시드니 왜 이렇게 못난 주제로 내게 오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린 것들을 유난스레 귀중해 하시고 소매동냥이라도 해서 이것들을 외국유학을 시킨다고 하시든 말씀은 잊으셨습니까? 분하고 원통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원통한 고히은 지금 이국의 광야에서 무엇을 부르짖으며 헤매나이까?

나는 불쌍한 당신의 혼이나마 부처님 품속에 평안히 쉬이도록 하고저 이 밤이 밝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동대문 밖 지장암에 가서 마음껏 정성껏 애원하겠나이다.

당신과 만나기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때 당신은 39세요, 나는 스물네 살이었지요. 무엇을 잡아 삼킬 듯이 검푸르든 북경의 하늘빛도 나날이 열어져가고 황토색 강물도 팔팔 넘치게 흐르고 만화방초가 음산한 북국의 산과 들을 장식해주는 봄 4월이었습니다. 나는 북경대학에 재학 중이고 당신은 무슨 일로 상해에서 북경에 오셨는지 모르나 어췌든 나와 당신은 한 평생을 같이하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두 해를 겨우 함께 살다가 다시 상해로 가시고 나는 두 살 먹이와 배속에 다섯 달 되는 꿈틀거리는 생명을 품어 안고 몇 년을 떠나 있던 옛터를 찾게 되었지요.

그 뒤에는 편지로 겨우 소식이나 아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은 늘 말씀하셨지요. 나는 가정에 등한한 사람이니 미리 그렇게 알고 마음에 섭섭히 생각 말라고….

아모 철을 모르는 어린 생각에도 당신 얼굴에 나타나는 심각한 표정에 압도되어 과연 내 남편은 한 가정보다도 더 큰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구나 하고 당신 무릎 앞에 엎드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과 성의와 용기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영어의 몸이 되어서도 아홉 해를 두고 하루 같이 오히려 내게 힘을 북돋아 주시든 당신이 아니었습니까?

지난 2월 18일 아침이었지요. 아이들을 밥해 먹여서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전보 한 장이 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무엇이라 하리까. 어쨌든 당신이 위급한 경우에 있다는 것이라 세상이 캄캄할 뿐이니 거저 앉아 있을 수가 있어야 하지요. 어떻게 되든간에 수범이를 데리고 그 날로 당신을 만나려고 떠났습니다.

뤼순형무소에 닿기는 그 이튿날 2월 19일 오후 3시 10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벌써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5년이나 그리든 아내와 자식이 곁에 온 줄도 모르고 당신의 몸은 프르팅팅하게 성낸 시멘트 방바닥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지요. 나도 수범이도 울지를 못하고 목메인 채로 곧 여관에 나와서 하루밤을 앉아서 새우고 그 이튿날 아홉시 되기를 기다려 다시 형무소에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고 면회를 거절하겠지요. 물론 비참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관리들의 고마운 생각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세상을 아주 떠나려는 당신의 임종을 보지 못하는 모자의 마음이 어떻하였겠습니까?

정말 당신은 그날, 그날은 2월 21일 오후 4시 20분에 영영 가버리셨다구요. 당신의 괴로움과 분함과 설움과 원한을 담은 육체는 2월 22일 오전 열 한시 남의 나라 좁고 깨끗지 못한 화장터에서 적은 성냥 한가지로 연기와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어! 가신 영혼이나마 부디 편안이 잠드소서!(『조광』, 1936년 4월호)

## 해방 1년 앞두고 셋방에서 숨져

단재의 사후 둘째 아들 두범이는 1942년 15살 때에 영양실조와 폐결핵으로 숨지고, 첫째 아들 수범이는 어렵게 한성상업학교를 나와 아버지의 자취를 찾아 만주로 떠나고, 병고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박자혜는 조국 광복을 1년여 앞둔 1944년 10월 16일 단칸 셋방에서 외롭게 숨졌다. 유해는 화장되어 한강에 뿌려졌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고, 2008년 박자혜의 위패를 남편의 묘소에 안치함으로써 사후 27년 만에 남편 곁으로 갔다.

수범이는 해방 2년 뒤인 1947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평양에서 3년 살다가 1950년 12월 월남했다. 아버지의 친구였던 홍명희가 북에 남으라고 만류했으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뒷 수습도 못 한 불효자”라며 내려왔다.

아들의 삶도 신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부산에서 부두하역장 일을 하고 녀마도 주으며 신분을 감추고 살았다. 이승만 정권시기에 ‘단재의 아들’이라서 취업도 어려웠다. 4월혁명 후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난생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단재의 며느리 (신수범의 부인) 이덕남씨는 지금 시아버지의 삼청동 옛 집터 찾기운동을 하고 있다. 단재는 2009년에야 국적이 회복되었다.

누가 애국여성 박자혜 여사의 한과 그 가족의 잃어버린 삶을 보상해줄 수 있을까.

“누가 처자를 어여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마는 열사가 나라를 위함에는 가족까지 희생하는 법이니, 나라 사랑과 아내 사랑은 같이할 수 없다.” — 신채호, 『꿈나라』



**박 창 식**

(한겨레신문사 매거진랩 사업단장)



토론  
II

**이진옥**

((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토론  
Ⅲ

위 기 훈

(극작가, 한양대학교 연극과 겸임교수)